

대학별 수능 반영 비율 체크하고 수시 이월 인원 반드시 확인해야

7일부터 대입 정시전형 원서 접수
11일까지 가·나·다군 나누어 진행
지원전 제출 서류 꼼꼼히 점검
대학별 변환표준점수 등 고려
가장 유리한 대학·학과 선택을

학마다 수능 영역별로 반영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한다. 대학별 환산점수를 산출했다면 이 점수를 바탕으로 군별 안정, 적정, 소신권 대학을 선정해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 5-6개 안을 구성하는 것이 좋다. 전문가들은 대학을 선정할 때 우선 자신의 점수로 무난히 지원 가능한 안정권 대학을 파악한 뒤 적정, 상향 지원 대학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조언한다. 선정한 안정권 대학이 비교적 합격 가능성이 높다면 나머지 두 장의 카드는 공격적이고 도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도. 우원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정시는 결국 등수 싸움으로 본인의 등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조건을 고려하여 가장 유리한 대학 및 학과를 선택하는 것이 정시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 소장은 이어 "전체 수험생 중에서 본인이 지원을 고려하고 있는 대학 및 학과에 지원했을 때 몇 등이 예상되는지를 고려해 상향, 소신, 안정 지원을 하게 된다"며 "본인이 지원을 고려하고 있는 대학 뿐만 아니라 유사한 선호도를 보이는 대학들의 정시 모집요강 2개년치를 꼼꼼하게 분석하고 대학별 환산점수 등을 고려해 정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시이월·최종 모집인원 체크...지원자격·제출서류도 점검=지원을 희망하는 대학·학과를 대

상으로 최종 모집인원 체크는 필수다. 특히 수시 최종 등록 마감 이후인 5-6일 사이에 각 대학별 이월인원을 집중 점검해야 한다. 대학들의 수시모집 미충원자 등록 마감일은 1월 5일까지다.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선발 인원 규모를 살피고 최종 지원대학을 결정할 시간이 하루밖에 없다. 이때 함께 살펴봐야 하는 것이 전년도 추가합격 순위이다. 작년에는 어떤 모집단위에서 얼마만큼의 추가합격이 발생했는지, 그 규모는 일정하지, 경쟁률 대비 추가합격 비율은 어떠한지 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지원 대학, 전형, 학과에 따라 제출할 서류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회 균형 전형의 경우 온라인 접수 외로 자격을 증명하는 기타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제출서류의 일부가 누락될 경우 지원 결격사항에 해당하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서류 제출에도 기한이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원칙적으로 수시에 합격한 학생은 합격했다는 통보를 받게 되면 대학에 등록하지 않아도 정시 지원이 불가능하다. 단,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들(KAIST, UNIST, GIST, DGIST, 경향대학 등)은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수시 합격 여부에 상관없이 정시 지원이 가능하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동강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세온피싱' 4년 연구끝 낚시 보조기구 개발 특허 등록

동강대학교 창업보육(BI)센터 입주기업인 '세온피싱'이 낚시 2천만 시대에 발 맞춰 낚시인들의 손목과 팔꿈치 통증을 막아줄 기구를 개발, 특허등록을 마쳐 눈길을 끌고 있다. 낚시는 팔이나 손목을 과도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어 손목과 팔꿈치를 이어주는 인대나 관절의 손상이 불가피해 낚시인들 대다수가 후유증을 겪는다. '세온피싱'의 김태준 대표는 낚시인들의 고질

적인 고충 해결을 위해 낚시 보조기구를 창업 아이템으로 선택했다. 김 대표는 낚시대를 바다에 빠트리지 않고 낚시 중이나 랜딩 시 손목의 부하를 줄일 수 있는 기능, 강한 찢질이 가능하게 하는 버팀 기능을 갖춘 일명 '낚시 아대'를 개발했다. 4년의 개발을 통해 최근 특허 등록의 결실을 맺었다. 특히 이 보조기구는 고기를 낚다가 낚시대를 바다에 분실되지 않도록 하는 고정 기능이 장점이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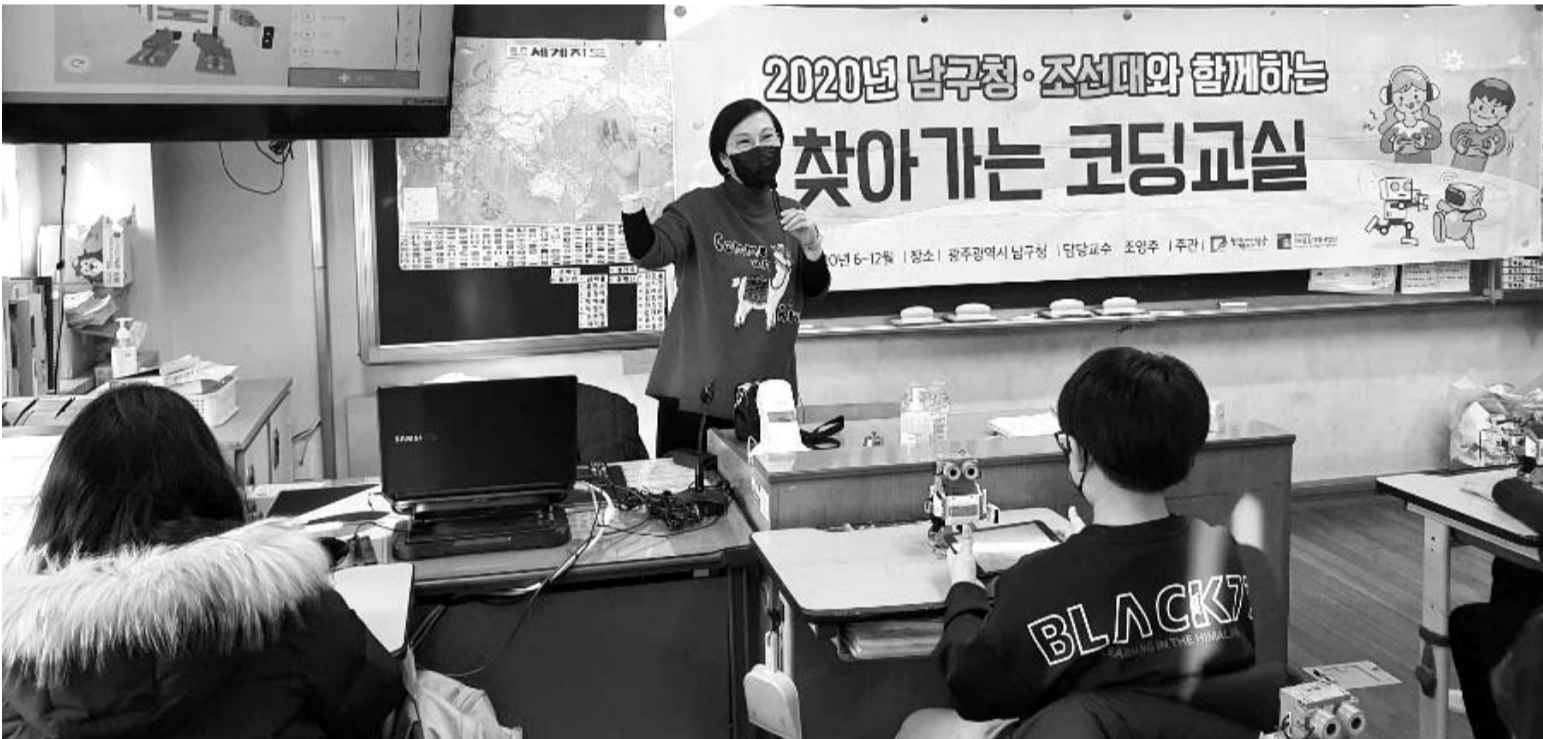
"빛고을혁신학교, 자치학교 결합한 새 모델 필요"

광주교육정책연구과제 보고회

광주교육청의 핵심 사업인 혁신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빛고을혁신학교와 민주주의에 기반한 교육문화 조성을 위한 가정 '빛고을자치학교'를 결합한 새로운 모델의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열린 2020 광주교육정책연구과제 결과 보고회에서 김욱희 연구원이 '빛고을혁신학교는 광주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라는 주제발표에서 이 같이 제안했다. 광주빛고을혁신학교는 장휘국 교육감의 직선 1기 핵심공약 사업으로 공교육 성공모델 창출이라는 목표로 지난 2011년 처음 시작됐다. 3기(2018년~2022년)가 진행중인 2020년 현재 유치

원 3원, 초등학교 37교, 중학교 19교, 고등학교 4교, 특수학교 3교가 혁신학교와 예비혁신학교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장 교육감 직선 1기와 2기에 중점 육성했던 혁신학교가 직선 3기 들어 고작 4개 학교만 확대하기로 하는 등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고회에서 김 연구원은 "2022년 3기까지 12차 혁신학교와 1년차 혁신학교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빛고을혁신의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공교육 혁신모델의 성공적 안착, 학교문화혁신과 학교자치 확대, 민주학교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공공성과 민주주의에 기반한 교육문화 조성, 위기 시 학교자율권 확대를 위해 빛고을자치학교를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조선대 SW중심대학사업단-남구청 '2020년 AI 활용 평생교육' 성료



호남권 최초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인 조선대 SW(소프트웨어)중심대학사업단이 2020년 한 해 동안 광주 남구청과 함께한 '2020 인공지능(AI) 활용 평생교육을 위한 AI-SW교육' 프로그램을 최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조선대와 남구는 지난 2년 동안 '찾아가는 코딩교실', '지식재산아카데미', 'AI기초 활용을 위한 코딩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조선대 제공>

전남여성상 학생 6명 9급 공무원 시험 최종 합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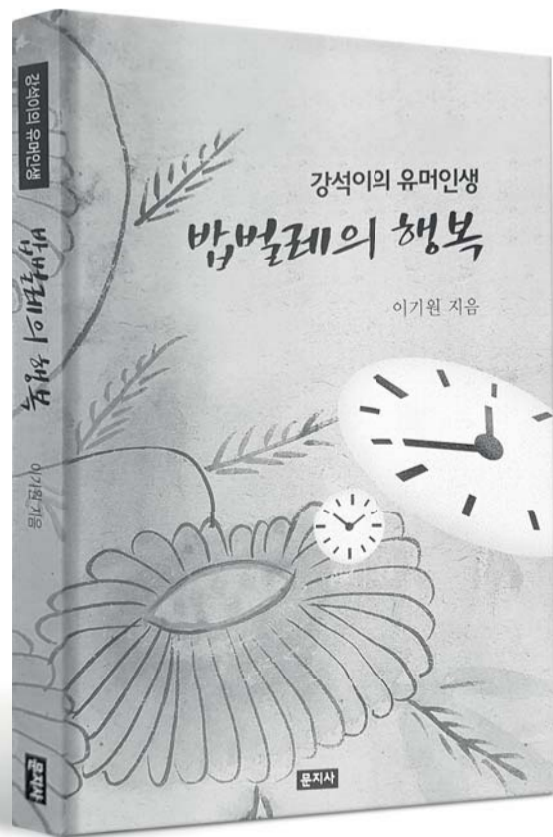
전남여자상업고등학교가 6명의 국가직 9급 공무원 합격자를 배출해 '공무원 사관학교'의 명성을 재확인했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전남여성상은 2020년도 지역인재 9급 국가직 공무원 수습직위 선발시험에서 이예슬·장진아(이상 일반행정), 변지수·김수민·김지민(이상 세무), 서현슬(관세) 양 등 6명이 최종 합격했다. 전남여성상은 1학년 때부터 공무원반을 운영하며 필기시험에 대비한 방과 후 수업과 함께 면접 준비

를 위한 전공 스터디, 스피치 훈련, 모의면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10년 동안 매년 3-6명씩, 올해까지 총 38명이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했다. 이와 함께 매년 40~50여 명의 학생을 공공기관 및 대기업, 금융권에 합격시키는 등 뛰어난 취업 실적으로 광주를 대표하는 명품 특성화고등학교로 자리매김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대 겨울방학 기간 학생 자기주도 학습 지원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중)가 학생들이 방학 중에도 스스로 학습 활동을 이어 갈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광주대 교육혁신연구원은 4일 겨울방학 기간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향상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마중물 프로젝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외국어 학습활동과 봉사활동, 공모전 도전, 전공 관련 연구, 연구학습에 필요한 활동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광주대는 또 학생들이 스터디그룹을 구성해 활동하는 겨울방학 전공 학습 오픈공통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참여 학생들은 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전공 교과목 학습, 자격증 및 외국어 실력 쌓기 등을 실시하게 된다. /채희중 기자 chae@

동, 공모전 도전, 전공 관련 연구, 연구학습에 필요한 활동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광주대는 또 학생들이 스터디그룹을 구성해 활동하는 겨울방학 전공 학습 오픈공통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참여 학생들은 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전공 교과목 학습, 자격증 및 외국어 실력 쌓기 등을 실시하게 된다. /채희중 기자 chae@



정가 12,000원

전라도 촌놈 이기원이 쓴

'밤벌레의 행복'

유머와 에세이의 만남 **강석이의 유머인생**

작은 책상과 TV와 노트북, 책꽂이와 장롱이 서로 기대고 있는 서재방인지 골방인지에 쭈그리고 앉아 지나온 발자취를 회상하며 글을 써본다. 이왕이면 재미도 곁들여서 말이다. 이를테면 유머형 에세이다. 별로 특별한 삶을 살아온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는 소중한 인생이라고 자위해본다. 이 책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삶의 활력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지은이 이기원



행복요양원

서점판매 | 광주(영풍문고, 충장서림, 세종문고, 초원서점, 남문고, 글방문고), 순천(중앙서점), 목포(영풍문고) 인터넷판매 | 교보문고, 영풍문고, 알라딘, 에스24 (배송료 무료)